

오늘의 리더와 선비정신

- 참선비 퇴계선생의 삶에서 찾는다 -



Contents

I . 들어가면서

II . 요즘 한국인의 삶

III . 위기의 리더십, 그 원인과 대책

IV . 리더에게 절실한 선비정신

V . 참 선비 큰 스승 퇴계선생의 삶

VI . 지도층 리더의 선비정신

I

들어가면서

달라진 세상

- 물질적으로 풍요 / 정신적으로 힘든 삶
- 개인은 불행 ↑ / 사회는 반복 갈등 ↑
- 노인공경은 옛말 (敬老) / 기피경원하는 노인들 (嫌老)

다시 바뀌어야 한다

- 이런 세상에선 개인 · 사회 · 국가의 미래가 더 암울
- 원인을 찾아 잘 대처해야 함

II

요즘 한국인의 삶

1. 단기간내 경제기적을 이룩한 한국인

■ 그 원동력은?

- 자원, 자본 거의 없는 나라
- 잘 교육받은 사람이 해냈다

“근면, 교육열, 가족애”

※ 1970年代 내한한 아놀드 토인비도 극찬한 한국의 가족제도
(1889~1975)

“3대 함께 사는 한국의 가족제도는 인류를 위한 가장 훌륭한 제도이다”

“나는 외로워서 못살겠다”

■ 세계인으로부터 칭송받았던 나라

- 동방예의지국의 후예

2. 큰일난 오늘의 한국사회

■ 한국사람이 달라졌다(그 원동력 상실)

- 근면 →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
- 교육열 → 세계 제일, 지식교육만 치중
- 가족애 → 부모, 형제 간에도 이해타산 하면서 상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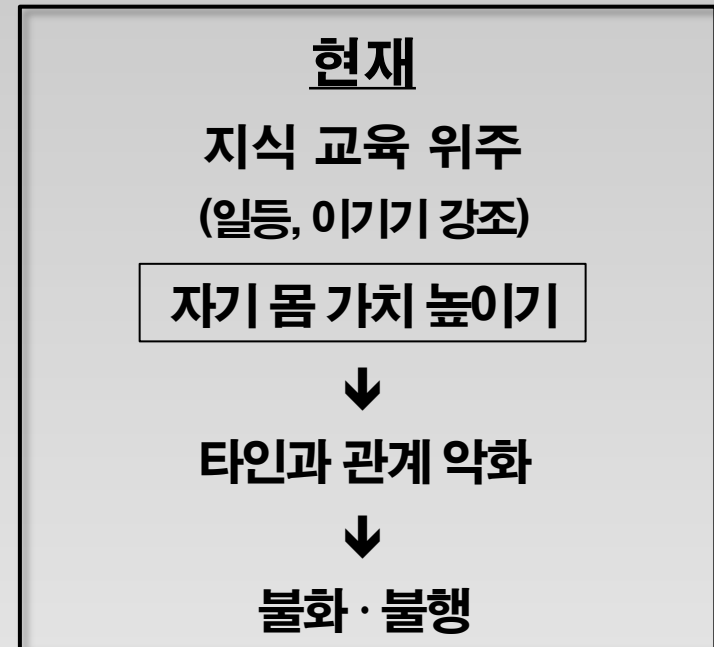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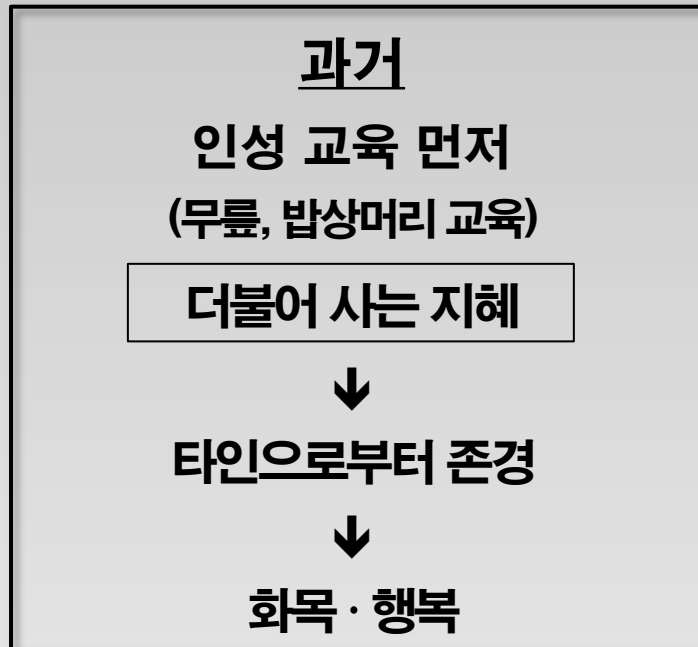
■ 그 결과 한국인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다

- 국민 행복이 뒷걸음
 - 자살률 : **OECD 국가 중 1위** (2003년 이후 15년간 부동의 1위)
OECD 평균 자살률의 3배
- 특히, 나이를수록 불행한 삶
 - 노인자살률 : **OECD 노인 평균 자살률의 8배**
 - 노인학대 가해자 비중(2016) : **가족 75.5%** **아들 37.3%**
가해장소(2016) : **가정 88.8%**
-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
 -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재앙

3. 사라진 인성교육

■ 이 땅의 사람이 달라졌다 ← 교육의 차이에서 발생했다

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아주 달라졌다



👉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둘 다 필요

[지식교육 + 인성교육]
몸가치높이기 더불어사는지혜

→

[본인은 행복
 가족은 화목
 사회는 예의자국]

4. 위기에 처한 리더십

■ 사라진 인성교육의 책임은?

- 어른 · 리더에게 있다
 -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른다
 - 자라면서 보고 배운다

■ 어른 · 리더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?

-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
- 올바른 인성을 보여주지 못함

■ 인성교육은 어른의 좋은 처신(본)으로부터 시작된다

-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처신해 왔는가?

👉 이제 나부터 아랫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자

- 일상과 사회에서 존경 받는 삶이다
- 옛 선비처럼 퇴계처럼 살면 된다

Ⅲ 위기의 리더십, 그 원인과 대책

1. 리더십 위기의 원인

- 벌어진 세대갈등의 원인 -

■ 불가피한 외생적 요인 발생

①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, 도시화로 핵가족화

- 어르신 공경의 대가족제, 전통적 지역공동체(동족부락 등)의 급속한 해체
 - 유교적 가치관의 퇴조, 물질만능주의 팽배

② 과학화, 정보화 시대의 도래

- 어르신 경험, 경륜보다 젊은이의 변화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

■ 이보다 심각한 내재적 요인이 대두

① 노소간 입장과 견해차

어르신 세대

가난 벗어난 자랑스런 세대다

너희 세대도 **노력**하면 될 수 있다

젊은 세대

현재의 심각한 취업난과

불안한 미래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큰 고민

* 어르신 관점에서 타이르고 질책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?

(젊은 세대 반응: 우리 보고 **노오오오력** 하라고요?)

② 노소간 역할의 중첩 마찰과 지혜전수의 퇴조

	어르신 세대	젊은 세대
과거전통사회 (역할의 구분)	· 경제활동 물려주고 손자교육·유림활동 등 정신문화적 기능 · 지혜와 경륜을 전수	· 경제활동에 전념 · 어르신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구함
오늘의 현실 (역할의 마찰)	· 경제활동의 지속 희망 (정년 연장, 구직활동 등) · 수명 연장에 따른 본인 앞날 관심	· 좋은 일자리 얻기 어려움에 대한 반감 (경쟁자로 인식) · 세상변화에 어두운 뒷방 노인네로 간주

2.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?

-어르신 세대가 다시 존경받는 길-

■ 외생적 요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

(핵가족화, 정보화)

- 세상 변화를 탓하고 주저 앓을 수는 없다
- 컴퓨터 공부, 젊은 세대와 새로운 소통 방법 찾기 등 부지런히 따라가도록 노력
- 그러나 젊은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

■ 내재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함

(입장차, 역할 변화)

● 젊은이에게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함

- 불안한 미래의 젊은이 ← 풍부한 경륜 지혜를 갖춘 어른신의 계도
- 나무만 보는 젊은이 ← 숲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어른신의 식견

● 어른신의 인생 길잡이가 성공하려면

- 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쉽 없이 배우는 자세 견지

學以終身 배움으로써 삶을 마친다 - 退溪의 일기(54세)

- ② 백마디 말이나 글보다 한번의 행동이 중요

只在躬行 몸소 행동하는데
不在文 글공부에 있지 않다 - 退溪의 詩

☞ 이렇게 살아가면 일상과 사회에서도 더욱 존경 받게 됨

3. 유위락(有爲樂)의 실천

■ 노인4고(老人四苦): 빈고(貧苦) / 병고(病苦) / 무위고(無爲苦) / 고독고(孤獨苦)
(경제력) (건강) (하는 일) (행복감)

- 빈고, 병고의 해소는 본질적으로 한계

- 효과가 자신과 가족에 국한
- 언젠가는 맞이하는 숙명

- 무위고, 고독고는 완전 해소 가능

- 유위락(일하는 즐거움)으로 전환
- 빈고, 병고도 상당히 완화

■ 유위락이 이루어 지려면

나도 좋고 타인에게도 존경받는 일을 앞장서 실천

● 내게 좋은 일이란?

- 내가 잘할 수 있는 일
- 그 동안의 지혜와 경륜의 전수

● 남에게 존경 받는 일이란?

- 우리 집안·사회가 원하는 일
- 전통정신가치의 함양



다음 세대
착한 사람으로 계도

도덕 선진
일류 사회 물려주는 일



어르신 리더의
사는 보람과 위상
더 높아짐

참 선비의 삶
(眞儒)

■ 누구를 따라 배울 것인가?

- 그것은 참선비(眞儒)의 삶을 본받고 배워야

4. 이시대 바람직한 어르신 세대의 의무

- 세니오르 오블리주 (Senior Oblige) - ※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확대 진화
어르신 세대의 사회적 책무

- 옛 선조(선비)와 오늘의 젊은이를 잇는 교량역할 수행

- 옛 선조의 삶 속에서
- 오늘날에도 필요한 가치와 지혜를 찾아내어
-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에 전달

- 이 거룩한 소명(召命)을 위해

어르신 스스로 삶 속에서 실천 (말보다 행동)

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?

가치있고 지속 가능한 실천!

IV

리더에게 절실한 선비정신

1. 현대사회 리더와 리더십

■ 전통신분사회와 달리 오늘날은 누구나 리더(지도자)가 됨

- 반상, 남녀, 적서 등 차별 사라짐
- 교육수준이 높아짐(대학진학을 세계 최고수준)
- 일원화 사회에서 다원화 사회로 전환
- 현재 지도자와 미래 지도자, 큰 지도자와 작은 지도자의 차이가 있을 뿐

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리더십

- 리더의 자질과 결단이 매우 중요

2. 섬김의 리더십이 최고 리더십

※ 리더십의 3단계

- 물리력 < 금력 < 존경심
(힘) (돈) (배려·섬김)
- 21세기 최고 리더십: 섬김의 리더십(Servant Leadership)

■ 스티븐 코비 등 서양학자 : 섬김의 리더십이 최고 (Servant Leadership)

- 리더가 자신을 낮추고, 상대를 높일 때
 - ① 일도 성취 ② 존경도 받게 됨



■ 프란시스코 교황 : 참권력은 섬김이다

- 몸소 실천하며 존경받고 있음



3. 우리 선비는 옛부터 섬김의 리더십 실천

■ 선비와 선비정신

- 선비 : 유학을 평생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

- 선비는 순수한 우리말

- 儒(선비 유) : 人(사람 인) + 需(구할 수) = 세상이 구하는 사람

※ 양반과 선비의 차이

양반은 신분계층

문반과 무반
자손까지 포함

선비는 이상적 인격체

지덕을 갖추고
의리/범절 있게 행동

- 선비정신 : 선비들의 삶과 추구한 가치

- 수기안인(修己安人) 먼저 인격수양하고 나라와 백성을 평온하게 함

- 박기후인(薄己厚人) 자기에게 박하고 남에게 후하게 살아감

- 선우후락(先憂後樂) 낯은 일 먼저하고 즐거운 일 나중에 함

■ 선비정신을 누가 먼저 실천할 것인가?

-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이상적
- 현실적으로 지도층이 먼저 하는 것이 순리

“지도층(리더)이 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?”

(子帥以正이면
자솔이정)

孰敢不正이리오)
숙감부정

- 공자(논어 안연편) -

☞ 누구를 따라 배우고 실천할 것인가?

1. 퇴계의 참가치

■ 그 동안 알고 있던 우리의 편견과 오해

- 조선 최고의 유학자 퇴계
- 오늘의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분

■ 그러나 유학에서 공부한 것을 철저하게 실천(知行并進)

- 당대는 물론 후대에서도 존경

■ 행장 없이도 시호를 받은 퇴계 ※ 행장(行狀)은 사후에 쓰는 일대기

- 퇴계의 행장이 왜 없는가?
 - 아무도 쓰겠다고 나서지 않음
- 그래도 시호를 받은 퇴계
 - 전례(前例) 없고 어린 임금 선조 주저
 - 모든 신료들이 주장, 관철(울곡이 앞장)
 - 문순공(文純公) 시호 받음

2. 향기나는 삶의 이모저모

모든사람을 배려 존중

① 바깥 어르신 퇴계, 집안 여인들 엄청 아낌

● 재취부인(안동권씨) 온전치 못한 부인을 보듬다

● 말자부(봉화금씨) 며느리를 극진히 배려하다

→ “시아버지 묘소 아래 묻어달라
죽어서도 정성껏 모시겠다”

② 양반신분 퇴계, 천민들까지 배려

● 하녀 학덕 손자의 유모 요청을 허락치 않다

“남의 자식 죽여 내 자식을
살리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”
신분의 차이는 있으나
생명에 차별은 있어서 안된다

→ 말증손자는 두 돌 지나서 죽다



③ 큰 스승 퇴계, 나이 어린 제자를 존중

- 26살 어린 고봉 노학자 퇴계(58세)와 청년 고봉(32세)

사단 칠정에 관해 8년간 논변

→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다

→ 두분의 학문도 크게 발전하다

상대를 존중하며 진솔하게
의견을 주고받은 결과



- 35살 어린 율곡 노학자 퇴계(58세)
청년 율곡(23세)을 공(公)이라 칭함

- 어떤 제자에게도 경칭하고 인격존중
“너라고 하지 않았다”



- 제자들이 편하게 다가오게 배려

- 조그만 현판 글씨(도산서당)
- 사립문(유정문) 밖까지 마중 전송



- 제자들의 스승 존경은 지금도 이어짐(陶雲會)

-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- (영국, 새뮤얼 존슨 1709~1784)

화 목 한 퇴 계 가 정

① 어머니의 가정교육

- 생후 7개월 만에 부친 별세
- 흠어머니(춘천박씨) 슬하 막내 아들
 - 33세 홀로 된 가장: 시어머니, 7남매
 - 안,밖 살림 몸소 도맡아 일하다
 - 올곧게 자녀교육

“세상사람들은 항상 과부의 자식은 교양 없다 비방하니,
너희들은 남보다 백배 노력해야 한다”

“문예(지식)만 치중 말고

몸가짐과 행실(윤리적인 삶)에 주의를 기울여라”

● 퇴계가 쓴 어머니 묘비문

“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은 어머니다”

“어머니는 문자를 모르셨다”

< 퇴계 선생 업고 밭에서 일하는 모습 >



人十己千

퇴계선생의 어머니, 춘천박씨 묘소



② 형제 간의 각별한 우애

- 퇴계8세 때 형이 손을 다쳐 피 흘리는 것 보며 대성통곡(할반지통 割半之痛)
 - 훌륭한 인물과 명문가문에서 형제간 우애가 이처럼 있었다
- 형제간 우애는 인간관계의 출발점
 - 형제간 우애 → 일가친척 → 친지, 동료 → 고객, 남과 진정으로 가까워 진다
- 옛날보다 오늘날에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

③ 숙부를 눈물 흘리며 그리워 함

- 55세 퇴계, 청량산에서 눈물을 쏟다
 - 15세 때 숙부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
- 이해 못하는 손자, 제자들에게 진솔한 삶을 가르치다
 -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

· 遺詩 三復 涕橫流

(
· 汝輩 他年 知我感
· 當時 同汝 少年身

④ 부부간은 서로 존중

< 온전치 못한 둘째부인에게 실천 >

- 나무라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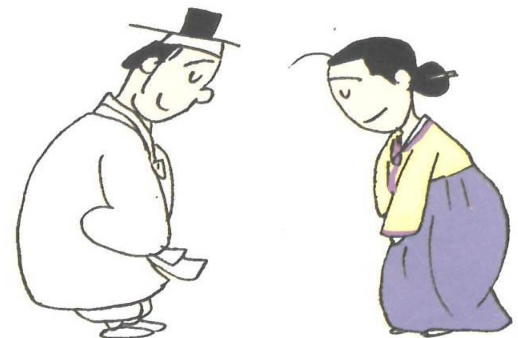
< 말손자에게 편지로 가르침 >

- 부부는 인륜의 시작, 만복의 근원
 - 손님 대하듯 조심하며 공경(相敬如賓)

“가깝게만 지내면
알보고 업신여겨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”
“조심하며 공경하는 태도는
그리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한다”

<퇴계 선생이 부인을 대하는 모습>

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워도 지극히 바르고,
지극히 삼가야 하는 법이다.



퇴계의 검소, 청렴, 겸허한 삶

① 검소한 삶

- 의(낡아 터진 신발, 털옷 20년 등)
- 식(세가지 반찬) “백성 먹는 것보다 낫다”
- 주(도산서당 한 칸 방)

가난할수록 즐기시오(貧當益可樂)



② 청렴의 실천

● 공직 생활에서

- 단양군수 이임시 : 이삿짐 이것 뿐
전별예물 마속(麻束)을 거절
- 풍기군수 이임시 : 책 담아온 상자를 관(官)에 반납

● 일상 생활에서(서울 서소문 사실 때)

- 이웃집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주어 돌려주다

“선생 마당에 떨어진 밤은 댁에서 드시지요”

“남의 집 과실을 함부로 먹을 수 없소”

“주인인 제가 말씀 드리니 무방합니다”

“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습성이 생겨서 아니됩니다”

“여름에 시원한 그늘이 되고 밤을 던질 때
운동이 되어 고맙습니다”

→ 청백리로 선정됨

③ 솔선수범

- 세금과 부역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 냄(예안 현감 곽항)
- 낙동강 은어를 피해 먼 곳으로 이사



④ 나라를 향한 일관된 자세

벼슬을 거둬 사양

- 79 차례 사직상소
(140회 벼슬 제수)

- 임금도 매우 아쉬워함

※ 명종 임금

▪ 초현부지탄(招賢不至嘆) 제목으로 글을 짓도록 함

▪ 「도산기」를 담은 도산의 그림을 병풍으로 제작 침전에 두고 그리워함

- 나라에서 수락한 까닭은? 퇴계의 소망을 알기 때문

- 퇴계의 소망은

▪ 이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(“소원선인다(所願善人多”)

▪ 학문을 닦아 후세에 도(道)를 전해 주는 것 (“입언수후立言垂後”)

▪ 이를 위해

(독서 - 사색 - 저술 - 교육
스스로 일상에서 실천

※ 퇴계 마지막 귀향 450주년 재현 걷기(1569 → 2019년)

• 노정: 서울 봉은사 - (남한강) → 충주 - (죽령) → 안동 도산서원
(4. 9일) (4. 21일)

• 걷기 재현단: 15명 내외(후손, 제자 후손, 도산서원, 선비수련원, 퇴계학자 등)

⑤ 겸허한 마음으로 일관하다

-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달리

자신을 비우는 겸허(謙虛)를 실천

- 강론할 때 **발병구약(發病求藥)의 마음**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기다림

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

不能舍己從人

배우는 자의 큰 병이다

學者之大病

세상의 의리(옳은 이치)란 무궁한 것인데

天下之義理無窮

어떻게 자기만 옳고 남을 그르다 할 수 있는가?

豈可是己而非人

- 퇴계언행록 -

3. 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

■ 어려운 환경(혈연, 지연, 학연)을 극복하고 큰 성취

- 끊임없는 공부 → 대학자
- 자연과학, 천문까지 탐구



훈상 / 훈천의

(복원 전 현재모습)



훈상

(복원 후 전시 계획 2018. 8. 29 오후 2시 도산서원)



훈천의

☞ “우리도 노력하면 된다”

“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”

■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

- 모르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
-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다

☞ “우리도 작은 것 한가지씩 실천하면 된다”

Ⅵ 지도층 리더의 선비정신 실천 방안

■ 항상 말보다 몸으로 실천(술선수범)

其身正 不令而行 제 몸이 바르면 시키지 않아도 실천하지만
其身不正 雖令不從 제 몸이 바르지 않으면 시켜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

- 공자(논어 자로편) -

以身教之者 從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
以言教之者 訟 말로 가르치면 대든다

- 이태좌(조선 영조 때 상신) -

■ 옛 선비처럼 <백록동규도> 중 2가지 덕목을 우선 실천

- 오교지목 五教之目 ➡ 오륜의 현대적 실천 ➡ 인간관계 / 공감능력
- 위학지서 爲學之序 ➡ 5단계 교육방법 실행 ➡ 창의력 / 융합능력

(1) 내가 먼저 오륜(五倫)을 실천

● 시대에 맞게 실천

오륜

① 부자유친(父子有親)

② 군신유의(君臣有義)

③ 부부유별(夫婦有別)

④ 장유유서(長幼有序)

⑤ 붕우유신(朋友有信)

오늘의 오륜

부모 자녀는 서로 공경하고 사랑한다

- 부모에게 효도, 형제와 우애
-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함

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산다

남편과 아내는 자기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존중한다

- 양성 평등의 시대다
- 서로 존중해야 노후에도 행복하다

어른과 아이는 서로 예의와 순서를 존중한다

- 세대갈등의 예방은 상호 존중(겸손과 배려)이 제일이다

친구를 신뢰하고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

- 신(信)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

나의 모범적인 솔선수범을 통해

- 주변을 바른 사람으로 이끌고
- 그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감

(2) 이 시대 교육방법으로 5단계 교육(五段階 教育)을 실행 (위학지서爲學之序)

●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융합능력 갖춘 인재 양성 필요

- 일률적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는 한계
- 학생 사전 독서 → 수업 시간에 질문 토론 방식 → 자기 체득(體得)
- 유태인 부모는 자녀교육에 질문을 매우 중시(하브루타 교육)
- 우리 전통의 선비 5단계 교육이 훨씬 앞섬

● 우리 전통의 오단계 교육(五段階 教育)을 되살려야 함

- | | |
|----------|---|
| ① 박학(博學) | 먼저 넓게 읽고 듣고 쓰고 배움 |
| ② 심문(審問) | 의문이 나거나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질문 |
| | ※ 전통교육의 가장 큰 특징 |
| | ※ 동양 주요경전은 문답서임
논어, 맹자, 주자서, 퇴계자성록 등 |
| ③ 신사(愼思) | 답변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 |
| ④ 명변(明辨) | 생각을 토대로 명확하게 판단 |
| ⑤ 독행(篤行) | 판단한 것을 독실하게 실천 |